함께 나누고 모두를 이롭게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㊷ '재벌×형사'(2024)



'재벌×형사'는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돕는 수사 드라마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가 특정한 직업을 묘사하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분야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녹여내야 드라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 법조인, 의료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시간 현장을 취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 현장 체험을 시킨 모범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어서 그런지 드라마에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벌이다. 그룹의 재벌 2세나 3세가 '실장',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도, 재벌이 드라마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재벌을 묘사하는 데에 자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드라마에 보이는 재벌들은 대체로 온갖 비리의 온상이거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주범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젊은 후계자들은 화려한 생활을 누리며 사업보다는 연애에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 '재벌×형사'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한다.

한수그룹 회장의 작은아들이자 한수그룹 경영전략실장인 진이수(배우 안보현)는 스카이다이빙부터 헬기 조종까지 온갖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취미 부자이자 레이싱 선수와 경기를 즐기는 스릴 마니아다. 자신의 모든 활동을 SNS에 업로드해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한수그룹의 어마어마한 재력과 인맥을 '창의적으로 노는 데'만 활용하는 이 시대의 한량 이수를 두고 사람들은 "노는 데 목숨 건 금수저"라고 한다.

일례를 들자면, 영업이 끝난 백화점을 통째로 빌려 여성을 납치한 범죄자 팀과 이들을 섬멸하고 인질을 구하는 경찰특공대 팀으로 나눠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수준. 게임을 승리로 끝낸 이수는 경찰 복장을 한 채로 거하게 파티를 즐긴다. 그러던 도중에 친구 영환(배우 최동구)을 찾아 나섰다가 영환에게 칼을 휘두른 강도를 뒤쫓게 된다. 이수가 진짜 경찰인 줄 안 강도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평소 격투기로 단련된 이수는 난투극 끝에 강도를 제압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서울 강하경찰서 강력1팀장 이강현(배우 박지현)에게 체포되고 만다. 술 취한 재벌이 행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죄가 없으니 금방 풀려나리라 자신만만한 이수는 강도의 칼에 상처를 입은 영환에게 전화를 걸어 강현을 바꿔준다. 하지만 사건 당일 혼자 마약을 했던 영환은 그런 일 없다며 잡아뗀다. 더군다나 이날은 이수의 아버지인 한수그룹 진명철(배우 장현성) 회장이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다. 이수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한수그룹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출마 이슈까지 묻혀버렸다. 대형 사고를 친 아들을 용서할 수 없는 진명철은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수의 뺨을 때리고 그룹 경영전략실장에서 해임한다.

그 직후, 이수와 난투극을 벌인 사람이 사실은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지면서 이번에는 강하경찰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경찰이 두 달 동안이나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한 용의자를 민간인 이수가 잡은 데다가 강현이 체포 과정에서 이수의 코뼈까지 부러뜨린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뭇매와 함께 대재벌 한수그룹의 고소를 직격으로 맞아야 하는 그야말로 폭풍전야.

이때 한수그룹 부회장이자 이수의 이복형인 승주(배우 곽시양)가 기가 막힌 묘안을 경찰에 제안한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수가 실은 두 달 전에 이미 변호사 특채로 경찰이 됐고, 일가족 살인사건을 공조 수사하던 중에 범인을 체포했다는 시나리오다. 난관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경찰서장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망나니 같은 이수의 이미지를 바꾸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판도를 만들어야 하는 한수그룹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 된 수사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팀원 신뢰 얻으며 성장
사회적 성공과 재산은 혼자 이룰 수 없어
최선·책임 다해 능력 펼쳐 사회 도움 돼야



드라마 '재벌×형사' 포스터. 사진 출처=SBS

그렇게 재벌 3세 진이수는 하루아침에 강하경찰서 강력1팀 '진이수 경감'이 된다. 하지만 이수를 맡아야 하는 강력1팀장 이강현에게는 이 상황이 지옥이다. 강직한 경찰이던 아버지를 존경해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 꿈이었던 강현은 취미도 없고 연애도 안 하는, 첫 체포가 첫 키스보다 짜릿하다는 천생 형사다. 경찰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목숨을 걸고 살다보니 강력계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악성 수배범 34명을 잡고 1계급 특진으로 경감이 됐다. 그런데 낙하산으로 떨어진 재벌 3세 망나니를 맡게 된 강현은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이수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한다.

드라마 '재벌×형사'는 얼떨결에 경찰이 된 재벌 3세 진이수가 뼛속까지 형사인 이강현 팀장의 강력1팀 팀원이 돼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이수는 그동안 노는 데 썼던 재벌 3세의 능력을 수사에 펼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범인을 잡는다. 특히 이수의 능력이 빛나는 대목은 수사에 차질이 생겨 체포 작전이 막힐 때다. 범죄 현장을 급히 조사해야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영장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자, 건물을 통으로 사버리기도 하고 스포츠카와 개인 헬기는 물론 전용 비행기까지 띄워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 체포에 성공한다. 그러면서 이수는 서서히 팀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진정한 경찰이 되어간다.

재벌 3세인 경찰이 주인공인 만큼 드라마는 기존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재벌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영리하게 비튼다. 일단 이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좀 덜 들었을 뿐 좋은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다. 경찰이 되기 전 흥청망청 놀던 시절에도 마약과 같이 선을 넘는 짓은 일절 하지 않았다. 집안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넉살 좋은 성격을 가진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다.

이렇게 선한 이수이기 때문에, 이수는 수사에만 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자신의 능력을 적극 발휘한다. 처음 맡은 사건의 피해자인 모델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자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유명 화가에게 표절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젊은 작가의 전시회를 열어줌으로써 홀로 남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다. 또 범인을 체포하는 이수의 활약상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인 진 회장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는 이수 이름의 한자가 '이로운 손[利手]'이라고 설정한 대목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교단은 재력가들의 후원 속에 발전했다. 이 재력가들을 경전에서는 '장자(長者)'라고 불렀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재벌이다. 부처님이 가장 오래 안거를 보냈던 기원정사를 승단에 보시한 기수급고독 장자가 대표적이다. 부처님을 위해 제타 태자 소유의 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전 재산을 바쳐 동산 전체에 금화를 깔려고 했을 정도로 깊은 신심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결국 이에 감복한 태자가 동산을 기증함으로써 '기수급고독 장자와 제타 태자의 동산'을 줄인 '기원정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는 불교의 입장은 출가자를 향한 것이다.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올바르게 부를 축적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셨다. 〈선생자경(善生子經)〉에서 부처님은 "재산이 많은 이들은 남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재물, 이익을 함께하라"고 하셨다.

재산이 많은 이는 끊임없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뤄졌음을 생각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이들의 공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검소한 생활로 부를 쌓고, 그 부를 부처님 법을 전하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이 아닐까.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